

연대보다 개인전...누구나 '우승 후보'

독립 대전 펼쳐지는 금요일 대혼전 연대 대신 실리 추구...고배당 속출 승부욕 증가로 낙차사고 증가 변수

지난주부터 연말까지 지방 경륜 경주가 중단되고 광명에서만 금·토·일 18경주가 진행된다. 광명경주 확대운영으로 선수들은 한 경주 한 경주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도 필요하다.

선발급과 우수급 선수들에게 특히 금·토 경주는 중요하다. 우선 금요일경주는 독립 대전이어서 그동안 강자들은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대가 된다 면 적극적인 협공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 연대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혼전경주에서는 누구나 우승 후보로 가정해야 한다. 올해 우승이 없었던 박창순은 지난 11일 광명 6경주에서 초주라는 불리함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호쾌한 쫓기기를 성공하며 쌍승식 52.4배, 삼쌍승식 452.7배란 고배당을 기록했다. 또한 광명 8경주에서는 대열이 꼬이는 틈을 타 내선을 장악했던 이상경이 쫓기기로 우승을 차지한 조재호의 후미를 뒤따라 들어와 삼쌍승식 1359.4배



경륜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역주하는 선수들. 연말까지 지방 경륜 경주가 중단되고 광명에서 금·토·일 18경주가 모두 열리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라는 초고배당을 터뜨렸다. 이처럼 축선도 신중해야 하지만 누가 승부욕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무조건 점수대로 평가하는 방식은 멀리해야 한다.

토요일경주는 대혼전이 예상된다. 선발급과 우수급은 7경주를 진행해 우승자만 결승에 나간다. 따라서 순리대로 풀려던 선수들도 우승 욕심낼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그만큼 우승 욕심을 내다 고배당 빌미를 제공하는 경주도 종종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우수 8경주에서는 신에 오기호가 앞선을 활용한 쫓기기로 승부로 추입 강자인 김치범을 따돌리고 당당히 결승 진출을 획득했다. 반면 선발 2경주에서 축으로 나선던 이한성은 지나치게 승부

시점을 조율하다가 앞선에서 추입을 하는 김만섭을 제압하는데 실패하며 쌍승식 51.5배, 삼쌍승식 276.1배의 고배당을 낳았다.

특선급 선수들도 이런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까지 라인 대결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기량을 인정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승부욕을 보이다가 낙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적 상위권인 정하늘, 정해민, 김현경이 16일 광명 결승에서 불의의 낙차 사고를 당했다. 11일 광명 15경주에서도 경상권을 대표하는 이현규, 황순철이 나란히 낙차했다.

'명품 경륜승부사' 이근우 씨는 "선수들 간의 생존경쟁이 시작됐다. 금요일경주는 혼전 편성이 많다보니 누가 몸 좋은 선수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으로 지정 훈련, 훈련일수, 선수 상담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토요일경주는 축선수를 중심으로 차권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승부 거리가 짧은 선수는 뒤집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요일경주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구주에 자력승부를 펼쳐 보였던 몸 좋은 선수들 중심으로 눈여겨볼 만 하다"라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경정 대학생 건전 지킴이 발대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2일 '2019년 경륜·경정 대학생 건전 지킴이 발대식'을 진행했다. 대학생 건전 지킴이는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와 대학생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안을 내는 참여형 건전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경륜경정 고객이 건전 지킴이로 활동했으나 올해는 중독 관련 학과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2팀(팀당 8명 이상)을 선정했다. 이들은 경륜경정 본장과 지점에서 발매규정, 영업장 준수 사항, 구매 제한액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건전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학생 대상 미사경정장 방송실 체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7일 미사경정장 방송실에서 하남 신장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 재능기부를 가졌다. 신장중학교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카메라, 컴퓨터그래픽, 아나운서, 음향, 프로듀서 등 다양한 방송 직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 현장실습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한 발표력 향상, 프롬프트를 활용한 실제 뉴스 진행, 경주 중계용 카메라와 컴퓨터그래픽 장비 운영 등 다양한 방송업무 현장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정용운 기자

찬 바람에 달라진 모터 성능 주의하라

후반기 경정 주요 변수들

선수들 '플라이 워터' 경계해야 스타 활약·신인 선전도 큰 변수

올 시즌 경정 총 49회차 중 지난주 38회차가 끝났다. 이제 11회차 일주일 남게 놓고 있다.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며 남은 기간 레이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플라이 워터 주의보

최근 경주 중에 플라이 워터가 자주 나 오고 있다. 지난 주에도 바짝 기세를 올리며 상승세를 타던 김민길이가 플라이 워터를 맞고, 37회차에서는 손동민과 박준현이 각각 사전 출발로 적발이 됐다. 손동민은 올 시즌 5, 8, 10월에 무려 세 번이나 플라이 워터를 범했다. 유망주 이진우도 35회차에서 출발 워터의 멧을 피해 가지 못했다. 플라이 워터는 점수(특점, 사고점) 관리를 해야 하는 시즌 막판에 선수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변수이다.

●스타급 선수들의 활약 여부

시즌 내내 팬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준 최상위급 선수들에게는 두 개의 대형 레이스가 남아 있다. 10월 쿠리하라배 특별경정과 12월 최고의 이벤트인 그랑프리 경정이다. 큰 대회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사고(부상이나 플라이 워터 등)를 피하기 위해 레이스에서 다소 소극적인 운영을 펼칠 수 있다.

●신인들의 깜짝 선전

역대급 약제로 폼찼던 15기지만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37회차 목요일 4경주에서는 구남우가 정정한 강자들을 따돌리고 깜짝 우승했다. 15기 중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는 정

세혁, 이인도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인들은 성적 저조에 의한 주선보류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후반기 막판 집중력 여하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찬바람과 낮아진 수면 온도

10월로 접어들며 확연하게 낮아진 기온도 경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면 온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름에 비해 모터의 전반적인 힘과 스피드가 좋아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심심치 않게 6초대 후반의 소개항주 기록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스피드가 올라간다면 선수들의 경주 스타일에도 변화가 올 수 있고 모터 기력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토토 신규 판매점 모집

국가유공자·사회적 약자 우선 배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이도토(www.ktoto.co.kr)는 10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신규 판매점 300개소 중 총 60개소를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를 제외한 240개 일반 신규판매점은 전국 223개 지역을 통해 모집하게 되며, 공정한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판매점 모집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요구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지정된 60개소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라도, 일반 신규 판매점 모집 지역으로 편입되어 다시 한번 판매점 모집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신규 모집은 20일까지 이뤄지며 신청접수는 2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5일 동안 케이도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내에 준비된 '소매인 모집 공고' 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와 개별통보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농구팬 44% "LG, 오리온 꺾고 개막 첫 승"

농구도토 매치 42회 투표 중간 집계 오리온 랜드리 부상...LG 반격 예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이도토(www.ktoto.co.kr)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20 시즌 남자프로농구(KBL) 창원 LG-고양 오리온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도토 매치 42회차 투표를 중간 집계결과, 참가자의 43.81%가 홈팀 LG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양 팀의 10점 이내 박빙은 29.86%, 원정팀 오리온의 승리 예상은 26.33%로 나타났다.

전반전 역시 LG의 리드 예상이 4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리온의 리드 예상은 29.54%를 얻는데 그쳤다. 이어 양 팀의 5점 이내 점전 예상은 25.75%로 가장 낮았다. 최종 득점대는 LG가 80점대, 오리온이 70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12.41%로 1순위를 차지했다.

3연패 뒤 첫 승을 신고한 오리온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연습을 겨뤄야 하고, 개막 5연패의 늪에 빠진 LG는 반등의 계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양 팀

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1승3패를 기록하고 있는 오리온의 부진은 마커스 랜드리 부재와 관계가 깊다.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던 랜드리가 10일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다. 출전이 불가한 랜드리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오리온은 올루세이 아솔루를 새로 영입했지만, 19일 펼쳐지는 서울 SK와의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종규가 떠난 LG도 시즌 초반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성민과 강병현이 아직 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외인 선수 캐디 라렌과 김시래의 활약을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다. 현재 라렌은 평균 득점 1위(24.2점), 리바운드 2위(11.8개)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김시래도 평균 득점 30위(11.6점), 어시스트 2위(6.2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렌과 김시래를 중심으로 한 LG가 랜드리 부재로 전력에 차질이 생긴 오리온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면, 토토 팬들의 기대와 같이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판이다.

이번 농구도토 매치 42회차는 경기시작 10분전인 16일(수) 오후 6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최혜진, KB챔피언십 1R 언더파 최다 투표

골프도토 스페셜 31회차 중간 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이도토(www.ktoto.co.kr)는 17일(목) 블랙스톤이전에서 열리는 'KLPGA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도토 스페셜 31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76.50%가 1번 선수인 최혜진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5번 선수 조아연이 67.71%로 그 뒤를 이었고, 2번 이다연(66.92%), 3번 조정민(64.63%), 7번 김아람(60.81%), 4번 박재윤(56.44%), 6번 임희정(52.79%) 순으로 집계됐다. 지정 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서는 1번 최혜진(32.69%)이 3~4언더파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1~2언더파가 1순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골프도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5명 혹은 7명의 프로골퍼의 1라운드 타수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수대는 5언더 이하, 3~4언더, 1~2언더, 0(이븐), 1~2오버, 3오버 이상 등 총 6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1라운드 최종 타수대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 해당 회차의 배당률에다 배팅금액을 곱한 만큼 적중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골프도토 스페셜 31회차 게임은 16일(수) 오후 9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1라운드 모두가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한편, 골프도토 게임의 경우 선수의 개인상황과 현지시정으로 인해 대상선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지정선수를 확인해야 한다.